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연구

김 봉 선

(숭의여자대학)

[요약]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은 현재의 실천이 임파워먼트의 실제 이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매우 미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이해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러한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기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실제적인 정책변화를 이루어낸 사례로서 장애인 자립생활운동과 그 발전과정에 나타난 임파워먼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임파워먼트의 과정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그 중 개인의 임파워먼트와 관련해서는 의식화 과정이, 거시적 임파워먼트와 관련해서는 조직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자립생활, 임파워먼트, 장애인, 질적 사례연구

1. 서론

사회복지실천의 제 분야에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Lee, 2001; 김인숙, 우국희, 2002).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파워먼트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가 기존 이념에 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임은 분명하지만 그 구체성과 체계성의 결여로 인해 실천가들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강점(strength)을 강조하거나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임파워먼트 관점에 기반 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같은 이유로 임파워먼트를 기존의 전통적 치료방식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양옥경·최명민, 2002:131).

둘째, 기본적으로 임파워먼트는 개인 수준의 변화는 물론이고 사회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현장에서는 개인의 인식변화와 이를 통한 심리적 통제감의 형성에만

치중할 뿐, 임파워먼트의 최종 목표인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이나 참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박시중, 2001:97-99; 이혁구, 2000:351-353; 양옥경·최명민, 2005: 119). 일예로 복지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클라이언트들이 임파워먼트 전략에 의해 개인적으로 통제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를 통한 집단행동이나 권리주장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김인숙 외 2002:48-49).

그러나 임파워먼트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비판의식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시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는 물론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파워먼트가 그 중요성에 부합되는 실천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임파워먼트 실천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더불어 임파워된 개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시적이고 집합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바로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은 초기에 사회복지사들의 주도하에 일종의 학습조직으로 출발하였다가 자조집단 형태를 거쳐 다시 자립생활센터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범한 재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이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에 참여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여 그 자체로 임파워먼트의 형성 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립생활운동이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정자체가 임파워먼트의 중요한 실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전에 수행된 자립생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그 개념 및 원칙을 소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이후에는 자립생활센터 및 개별 서비스들의 성과(김경미, 2005;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김동기, 2007; 이익섭 등, 2007; 이익섭·김경미·윤재영, 2007), 한국형 자립생활센터의 모형 개발(이익섭, 김경미, 김동기 2007) 등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립생활운동과 임파워먼트¹⁾의 관련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 밖에 임파워먼트 혹은 그 과정을 다룬 국내외 연구는 비교적 여러 편이 있으나 그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로는 김미옥·김희성·이민영(2005), 광지영(2005) 등이 질적 연구를 통해 그 과정을 파악하였으며 박수경·문수경(2006)은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을 밝힌바 있다. 이 밖에 허(Hur, 2006), 코저(Conger and Kanungo, 1988) 등은 문

1)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의견은 없다. 다만, 역량강화는 개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를, 권한부여는 임파워먼트대상의 피동성을, 세력화는 거시적 임파워먼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인용할 때는 각 연구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임파워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미시적 차원부터 거시적 차원까지를 통합하여 지칭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다.

현 연구를 통해 임파워먼트 과정을 파악하였고 스투어트 등(Stewart and Bhagwanjee, 1999)과 가바(Garba, 1999)등은 사례연구를 통해 각각 장애인 집단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초점은 주로 개인의 심리내적 임파워먼트로서 다양한 연구방법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시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임파워먼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 거시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로 발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문헌 검토

1) 자립생활의 개념과 임파워먼트

장애인 복지에 있어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러한 이념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ADA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과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하면 장애인 문제의 핵심은 의존적인 재활과정에 있으며 그 해결책은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을 제한하는 환경이다. 때문에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전문가의 주도아래 장애인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재활패러다임과 대비되는 의미를 갖게 되며(김동기, 2007; 이익섭·김경미·윤재영, 2007; 박수경, 2006; 유동철, 2005) 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를 형성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임파워먼트와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들도 초기에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발적 학습, 세미나 개최, 자조단체의 설립, 각종 시위 참여 등 자신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거시적 임파워먼트의 주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

(1) 임파워먼트의 개념적 특성

일반적으로 임파워먼트는 권력(power)의 획득, 소비, 감소, 상실 등과 같은 권력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과거의 권력 개념이 타인의 배타적 소유에 의해 공유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점과는 달리 최근에는 타인과의 관계 교류를 통해 공유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과정(multi-dimensional social process)으로 이해되고 있으며,(Page and Czuba, 1999, Lips, 1991, Weber,

1946: Hur, 2006: 524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임파워먼트는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에 따라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부여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실된 권력이 획득되는 과정을 파악하기도 하는 등 초점이 달라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Hur, 2006). 둘째, 임파워먼트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community) 등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Perkins and Zimmerman, 1995). 여기서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실제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개인의 힘이나 통제력이 증대되었다고 느끼는 사고의 변화에 중점을 두며, 반면에 거시적 차원에서는 조직, 제도 및 구조의 변화 특히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Gutierrez, 1990: 정순돌·김경미·박선영·박형언·최혜지·이현아, 2007). 셋째,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을 의미하는가 하면 획득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는 결과물(outcome)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과정으로서의 임파워먼트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임에도 많은 연구들이 임파워먼트의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Hur, 2006). 그런데 임파워먼트의 개념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초점을 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개인의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결과 등 이상에 제시한 특성들 중 일부를 단편적으로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2) 임파워먼트 과정과 주요 전략

임파워먼트를 과정 중심으로 파악할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를, 조직수준에서는 집단적 의사결정과 리더십의 공유, 지역사회수준에서는 정부와 다른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는 집단적 행동을 포함한다(Conger and Kanungo, 1988; Perkins and Zimmerman, 1995). 그러나 실제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개인적, 조직적, 거시적인 차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적인 조건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별 연구에서 이 각각의 과정을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서히 집단화 혹은 거시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숙 등(2002)은 임파워먼트의 과정을 이러한 일직선적인 발달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순환성’과 ‘확산성’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파워먼트는 그 순환적 특성에 의해 개인체계 내부에서만 임파워먼트되고 다른 관계로 확산되지 않는 임파워먼트는 진정한 임파워먼트라고 할 수 없으며, 확산적 특성에 의해 개인이 임파워먼트 되어도 가족이나 공동체의 임파워먼트가 동반되지 않으면 임파워먼트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더불어져야만 임파워먼트를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허(Hur, 2006)는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한 여러 분야의 문헌들을 검토하여 거시적 차원을 포함한 임파워먼트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임파워먼트는 파워를 상실한 개인이 ①계층화와 억압의 인식 단계에 이어 ②의식화(conscientizing)를 거치면서 개인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식화된 개인은 ③집단적인 활동을 하면서, 파워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

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동원mobilizing)단계, ④더 많은 권력이 공유됨에 따라 자신들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극대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⑤새로운 질서가 창조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어떠한 계기에 의해 임파워먼트된 개인은 동원화와 극대화 경험을 통해 더욱 임파워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관철되는 진정한 임파워먼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유능성(mastery), 영향력(impact) 등과 같은 개인적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와 집단 소속, 공동체(community)에 대한 관여, 공동체 조직에 대한 통제력, 공동체 구축 등과 같은 집단적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여(Hur, 2006) 앞서 언급한 임파워먼트의 순환성 및 확산성 개념의 중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 밀리 등(Miley and DuBois, 1999: 7)은 사회복지사가 매개된 임파워먼트 과정에서는 대화, 발견, 개발 등의 전략이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① 자원개발(activating resources), ② 동맹의 창조(creating alliances), ③ 기회의 확장(expanding opportunities)과 같은 구체적인 임파워먼트 지향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밖에 스투어트 등(Stewart and Bhagwanjee, 1999)은 자원통제, 의사결정, 비판적 의식, 비판적 이해, 집단에 대한 순응성 등이 임파워먼트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생활운동이 어떻게 거시적 임파워먼트로 확산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질적사례연구

일반적으로 질적 사례연구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 조직, 사건, 문화 등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대상 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배경, 현재상태, 환경적인 특성 및 상호작용 등의 맥락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5:448). 또한 가설 검증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한 통찰, 발견, 해석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연구자가 관련된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거나 연구 질문 자체가 '무엇'보다는 '어떻게' 혹은 '왜' 등과 관련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기도 하다(Yin, 1990).

본 연구는 자립생활이념 자체를 몰랐던 장애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내적 통제감 향상이라는 미시적 임파워먼트를 획득하게 되며, 이것이 어떻게 거시적 임파워먼트로 확산되는지를 파악하기위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친 자립생활센터,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연구대상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자료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장애인 개인과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이라는 배경

과 특성,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립생활운동이라는 단일사례를 여러 조직의 경험을 통해 분석하는 ‘다중사례연구-단일분석단위’로의 연구 설계를 갖는다(Yin, 1990).

2) 자료수집

본 연구에는 문헌자료 수집과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이 병행되었다. 문헌 자료에는 자립생활운동이나 센터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들 뿐 만 아니라 자립생활센터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정관,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 (인터넷)신문 기사, 해외연수 보고서, 각 센터 발간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서정보는 1차 기록물로서 반복 검토할 수 있고, 연구대상으로부터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질적 사례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자립생활운동 초기부터 관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심층 면접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상자별로 1회당 2-3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다. 심층면접에는 자립생활이념을 접하기 이전의 개인적 경험, 자립생활이념을 접하게 된 과정,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게 된 과정, 자립생활운동 과정에서의 역할과 이를 통한 개인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단위는 개인과 조직이지만 구체적인 분석단위는 개별 자립생활센터가 아닌 이들의 집합 혹은 자립생활운동 자체가 된다. 이 밖에 각각의 자료는 자립생활센터 도입 등이 처음 논의된 RI Korea대회(199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2007년 까지 약 10년간의 자료로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3) 면접대상자 선정 기준

본 연구에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이 동시에 활용되었다. 의도적 표집은 비교적 다양한 사례가 연구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범주를 구분하는데 활용하였고, 눈덩이 표집방법은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는데 활용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총 8명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 특성²⁾

구분	성별	장애특성	사회(장애) 운동여부	현재 직위	현재소속 연합단체	비고
A	남성	지체(중도)	재가장애인	센터장	A	
B	남성	지체(선천)	재가장애인	연합단체 대표	B	
C	여성	뇌병변(선천)	재가장애인	센터장	A	
D	남성	뇌병변(선천)	장애운동참여	센터장	A	
E	남성	지체(선천)	장애운동참여	센터장	B	
F	남성	지체(중도)	장애운동참여	장애인학교장	A	
G	남성	지체(선천)	장애운동참여	센터장	B	사회복지사
H	남성	비장애	-	연구소 재직	-	"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생활이념 및 센터의 초기 도입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장애인 당사자와 사회복지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주요 역할을 비교하였다. 둘째, 장애수용정도나 사회적 장애 개념의 인식 차이를 고려하여 중도장애인과 선천적 장애인을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이념을 접하기 이전에 기존 사회(장애)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최대한 다양한 경험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4. 분석결과 : 자립생활운동의 발전과 임파워먼트 과정

1) '좌절', 갈 곳 없음을 인식

자립생활이념을 접하기 이전 장애인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차별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정규교육과정을 마쳤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기존 장애인 복지 서비스체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부터 서서히 이 좌절이 지속적인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후)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이제 졸업을 수료를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찾는데 도저히 직장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 이용객으로 갔죠. (연구 참여자 B)

2) 이 중 사회(장애)운동 참여 여부는 각 개인들이 자립생활이념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경험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각종 장애인단체, 직업 동문회활동,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했음을 의미한다. 또 비교란에 제시된 '사회복지사' 역시 같은 시점에 사회복지사로서 자립생활운동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저는 학원을 다니고 그럴 때 계단을 제가 기어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비장애인처럼 살고 싶고 그런 지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나 스스로를 이제 독려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중략)...그래서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을 생각을 했을 때니까 (연구 참여자 G)

이와는 달리 장애운동을 비롯한 관련 단체 활동을 경험한 후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을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마참가지로 좌절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을 '이념적 공백기' 혹은 '방황기'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념적 공백기, 공황기 그리고 장애인 제 단체가 이권중심으로 흐르고 이런 오염...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에 길을 찾아야 되느냐 했던 목마름이 되게 있었던 거죠. 변혁적 장애운동 좌표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연구 참여자 E)

결국 자립생활 이전 단계에서 장애인들은 그 학력이나 사회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통제감이나 파워를 획득하지 못한 '좌절'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기 이전 장애인들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연구한 김미옥 등(2005)은 '당당하게 함께 하는 단계'로 임파워먼트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학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좌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들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이러한 '좌절'이 비교적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파워먼트의 전제가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문제가 '파워'없음에서 오는 것이고 동시에 '파워'를 획득함으로써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라는 논의나(김인숙 등, 2002) 또는 인적, 사회적, 정치적 방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좌절' 단계를 임파워먼트의 첫 번째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Hur, 2006).

2) '희망의 목격'을 통한 의식화

프레이어(Paulo Freire)는 의식화를 사회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 위치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상황과 구조의 문제, 역사와 구조의 문제로 보는 문제의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식의 사회적 결정성'을 강조하여 다른 주체와의 공동참여, 교육 등이 의식의 최고 단계인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이재섭, 1989).

이와 관련하여 '좌절' 상태에 있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념을 접한 후 장애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과정도 일종의 의식화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때의 의식화는 자립생활이념을 처음 도입했던 전문가³⁾ 집단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달리 구조화 된 특징이

3)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이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ADA의 충격'이라는 번역서의 발간도 소아마비장애인 단체였던 정립회관이 주도하였고, 이후 적극

있는데 이들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재가 장애인과 장애인운동세력의 의식화 방법은 차별적이었으며, 이후 이들의 역할도 차별적이었다.

(1) 의식화 대상의 차별화

자립생활 이념을 국내에 소개하고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노력했던 전문가 집단은 의식화의 대상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자립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운동역량이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이끌 수 있는 장애인운동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들 중증장애인 내부의 자생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전장연(전국장애인 연맹)을 비롯한 기존 사회(장애)운동세력의 핵심인물들이 장애 운동가 리더에 포함되었다.

거기는 원래부터 이제 역량이 옛날부터 충만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또 DPI인물들이잖아요. 그쪽 무리들은 또 역량이 상당히 있지. 근데 그 사람들 속성은 경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죠... 중략 ○○이형은 운동은 하고는 있었지만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좀 한발 짝 물러 있다기 보다는 좀 비껴 있었죠. 근데 내 생각에는 저쪽에서 하는 활동들 자체를 같이 끌어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립생활에 어떤 방향 자체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 참여자 H)

그러나 문제는 위의 진술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이념을 적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 중 일부를 의식화과정에 동참시켰다.

적어도 아무리 심한 지체장애인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장애인 중에 제일 심한 사람은 ○○○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자립을 시키면 자립생활 이념이나 서비스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는 진짜 원래 재가 장애인이었죠.(연구 참여자 H)

(2) 의식화 전략의 차별화

앞서 의식화 대상이 차별적이라는 것은 그 전략 역시 차별적임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을 의식화 과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장애인운동세력에게는 ‘해외연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재가 장애인들은 ‘동료상담학교’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은 서로 차별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외국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희망 목격’이 자립생활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동기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중 장애인운동세력에게 ‘해외연수⁴⁾’의 방법이 활용된 것은 이들이 이미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자

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 역시 정립회관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이었는데 그 스스로 장애인인 경우가 많았다.

- 4) 자립생활이념을 도입하기 위한 해외 연수는 1997년 RI Korea대회가 최초이며 일본 휴먼케어 관계자들과 한국 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 관계자들이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의 3개년 프로젝트가 협의되고 정립회관 직원들이 최초로 일본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1998년 ‘사회

립생활'에 대한 텍스트를 접한 경험이 있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는 94년에도 그런 것들을 봤었고 98년 책자도 봤었죠. 봤었는데 제가 변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변혁적 장애운동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에서 이걸 또 하나의 개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 참여자 E)

다음으로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의식화는 동료상담학교에 참여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라 할 수 있다. 동료상담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된 것은 1998년과 2000년 일본 휴먼케어와 정립회관이 주도한 자립생활세미나였지만 그 자체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자립생활이념을 접하게 된 것은 정립회관이 주도한 2001년⁵⁾ '동료상담학교'였음이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2001년도에 그 정립회관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동료 상담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가장 큰 계기라면 계기인데, 그 계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 한 12명 정도가 3박4일 동안 그 동료상담 기초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선진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재할이 아닌 자립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연구 참여자 A)

(3) 의식화의 결과

이론으로만 자립생활을 이해했던 장애 운동가들은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직접 목격하면서부터 자립생활 이념 혹은 사회적 장애의 이념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여기에 투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활동보조라는 걸 보고 또 놀라고,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도 놀라고 또 그 사람들이 연금이나 수급자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고 굉장히 일본에서 놀라고 왔고, 한국에서도 이 일을 좀 해야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G)

에 그 멤버들이 투어를 하고 인제 한 마디로 빙의가 온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느냐 했던 목마름이 되게 있었던 거죠. 변혁적 장애운동 좌표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빙의가 온 거죠. (연구참여자 E)

마찬가지로 재가장애인들에게 있어 동료상담학교에 참여 한 것 자체가 자립생활이념을 수용하는

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의한 미국연수, 2002년 '아이들과 미래' 지원에 의한 일본연수, 2002년 '삼성복지재단' 지원에 의한 일본연수 등이 개최되면서 많은 장애인 리더들이 해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 5) 2001년에 실시된 동료상담학교는 정립회관의 주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였다. 처음 2박3일 기초과정으로 개설되었다가 참여자들의 요구에 의해 심화과정이 개설되었고 이후 자립생활아카데미(목요세미나) 등으로 발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학습을 주도 하게 된다.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 장애운동 세력들의 의식화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통해 자립생활이념을 수용한 외국 장애인들의 삶을 직접 목격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동료상담학교는 바로 이 변화된 삶을 목격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경혜·최상미, 2004).

그 다음에 그때 리더로 왔던 사람이 와서 어떤 전문... 비 장애 전문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이면서 최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였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온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이제 개조인, 활동보조인 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생소하면서도 아주 정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연구 참여자 A)

자립생활 이라는 이거는 중증장애인 우선인거예요 그 상황과 모든 게 중증 장애인이 우선이 되는 거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전동휠체어를 받아도 그렇고 동료상담을 받아도 그렇고 자립생활센터의 직원을 채용해도 그렇고..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연구 참여자 C)

연구자는 의식화의 핵심을 '희망의 목격'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장애운동세력과 재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념을 처음 받아들이는 경로는 달랐지만 이들이 미국과 일본 장애인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립생활이념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이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인식하게 된 계기는 같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들이 해외 연수나 동료상담과정에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스스로 이동하고, 연금이나 수급권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음을 목격한 것은 '자기결정권'의 목격이라 할 수 있다(연구 참여자 G). 또 비 장애인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듣거나(연구 참여자 A),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의 우선인 세상(연구 참여자 C)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의 유능성' 혹은 '효능감'을 목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서서히 개인의 심리적 통제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Hur, 2006).

3) 의식화된 개인의 '집단화'

(1) 자조집단의 형성

해외연수와 동료상담학교 이후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의식화되어 서서히 심리적 통제감을 형성하기 시작한 개인들이 이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목표로 한 자조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Korean Network for Independent Living)⁶⁾는 2001년 동료상담학교 이후 약 2년간 목요 II세미나를 진행하여 자립생활의 필요성, 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6)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가 개별 자조집단인가 아니면 전체 자조집단들을 아우르는 연합단체인가에 대한 평가는 참여자들의 증언이 각각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초기 설립당시 후자를 전제로 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적인 역할 수행에서는 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조모임 형식으로..그러면서 스터디를 하거나 자립생활에 대한 스터디, 동료 상담의..어..뭐냐.. 이것도 스터디라고 얘기해야 되나.....서포트 모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동정은 싫다..뭐 혹은..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또 어떤 상담 그런.. 교육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그.. 역량을 좀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연구 참여자 A)

그래서 그 2박3일+2박3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 중증장애인한테 희망은 지역사회에서 살기위해서 희망은 자립생활센터 밖에 없다..그래가지고 이제 ○○○에 내려가서 자립생활 자조단..... 자조모임을 결성해서 젊은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예.. 7월부터 자립생활 센터를 이제 ○○○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연구 참여자 B)

허(200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의식화된 개인들은 '동원화 단계'에 이르러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집단행동을 수행하게 되며 다른 집단과의 연대를 도모하기도 하는 등 구성원들이 조직화되고 체계화 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 과정에서도 이러한 동원화의 특징들 즉, 인력동원과 체계화를 통한 집단화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단화는 다른 집단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의식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구성원의 수를 늘리며 조직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집단간 연대 활동

그런데 의식화된 장애인 개인이 모여 있는 '집단'이 되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행동목표나 전략이 수립되어 집단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집단으로서의 구체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전술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 활발했던 이동권 투쟁과의 연대 활동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사람과 사람, 2003).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에 제시된 진술에서 보듯이 집회, 시위, 농성, 거리 선전전과 같은 구체적 전술을 학습하였는가 하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라는 자신들의 조직 목표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기에 이동권 운동이 활발히 있었어요. 근데 그 이동권 운동도 어찌보면 자립생활 운동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정면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연구 참여자 D)

(이동권 투쟁 당시)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 철로 점거 했을 때는 저희 동료상담 출신들이 거의 다 밑에 내려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연구 참여자 G)

자립생활운동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이동권 투쟁에 연대하였다는 사실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연구 참여자 F가 이동권 연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의 주도에 의해 연구 참여자 A, B, C 등이 이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기존 장애운동세력을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역할모델로 삼고자 했던 초기 전문가 집단의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장애인'으로의 집단 정체감 형성

이 밖에 이러한 연대활동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느 특정의 동원이나 이론적인 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자연발생적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조직화의 정도가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및 이들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양적 규모, 개별 조직의 내적 결속력의 정도, 연대조직의 발전 정도 등임을 감안하면 (장애인권익문제 연구소, 1995; 김윤정, 1997에서 재인용) 당시 이동권 투쟁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의 경험은 훨씬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때요 저는 별로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나오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 그러면서 대화하고 수다 떨고 같이 저녁에는 술 한잔 하고 이런 분위기 운동 자체보다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 오며는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고 관심사도 똑같고 어떤 공통의 화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연구 참여자 C)

(집회에 참여하고 나면) 자신감이... 자랑을 하죠.. 돌아가서 '아.. 거기 갔었다. 갔더니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대단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기 동료들 하고..그러니까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중략.... 그러면서 서로 고무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연구 참여자 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임파워먼트 형성 과정에서 '집단화' 단계는 지속적인 의식화, 집단간 연대활동을 통한 전략·전술의 학습, 장애 정체감의 형성 등으로 대변된다.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의식화된 개인들을 집단화 하는데 초점을 두어 여러 자조집단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개인의 의식화 정도나 역량에 따라 자조집단의 형성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주도되기도 하고 장애인 스스로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자조집단의 형성은 구성원의 증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전술에 대한 지속적 의식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4) 비 공식 집단의 '조직화'

(1) 의식화된 '코아'들의 확산과 센터 설립

우리나라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는 2000년 하반기에 설립되었는데 이 때의 주요 재원은 '한일자립생활 기금'이었다.⁷⁾ 그러나 이 때 만들어진 센터들은 자생적 자조집단의 경험 없이 센터를 먼저 만들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명칭은 자립생활센터이지만 조직의 사업내용이나 운영이 아직 제한적이었다. 이 밖에 당시 해외 연수와 동료상담학교를 거친 장애인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자립생활 자조집단을 설립하였고 외부자원을 동원하여 점차 그 성격을 자립생활센터로 변화시키는 '코아'의 역할을 하게

7) 연구참여자 G의 증언에 의하면 한일자립생활기금은 일본 휴먼케어, 다찌까와 자립생활센터, 세다가와한즈, 정립회관 등이 출연한 기금이며, 앞서 언급한 정립회관과 휴먼케어의 3개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지역 복지관에서 독립해 나오기도 했고, 자립생활센터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냉담한 시선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의식화된 개인들이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립생활센터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뭐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되어야 한다.. 라는 그 어떤 문제의식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백상통 했겠죠.. (연구 참여자 A)

코아들이죠... 그 때 일본 같다왔던 코아들이 전국에 확... 퍼지면서 같이 모금회 제안사업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면서 확... 늘어나게 된 거지...(연구 참여자 E)

그러나 이렇게 확대된 센터들은 물적 토대가 확보되지 못한 채 인적 조직만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이때의 인적자원들은 훈련되지 않은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증언은 초기 센터들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한다.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데는 사실 지원 받으면 역량이 있는 사람 데려다 쓸 수 있어요. 지원을 못 받으면 그냥 그 머리가 그 머리인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2002년도에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가 사무실 없이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정립회관에 쪼마난 사무실, 휴게실 그런데서 더부살이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게 유령단체처럼 그렇게 살아왔죠.(연구 참여자 A)

이렇게 성장한 센터들에 2002년 11월 서울시(에이블뉴스, 2006. 4.19), 2003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05년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서 자립생활센터들은 외형적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자원동원은 이들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센터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때의 자원동원 활동이 이후 자립생활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이 밖에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초기에는 이러한 예산 관련 자원동원은 물론이고 타 센터에 회원을 의뢰하거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무형의 자원동원 활동 역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그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노들아학에 연결해주고.. 체험노동... 필요하다고 하면 광진 연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도 모이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C)

(2) 연합체를 통한 집합적 역량강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자립생활센터들이 처음부터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던 것은 아니다. 2003년에 출범한 '전국II자조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⁸⁾의 설립

취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때까지 국내 자립생활 관련단체들은 명칭과는 달리 아직 자조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조직운영에 미숙했으며 당연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www.cafe.daum.net/KDIL).

이러한 이유로 센터들은 앞서 언급한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의 명시적인 목적은 정보공유와 네트워킹, 활동방향 공동모색 등이지만 이미 준비단계에서 ①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치적 힘이 필요함, ②협의회의 운동성 지향, ③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 ④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에 합류하여 자립생활보장을 본격적으로 추구할 것 등을 표명하여(웹진 VOICE, 2003. 7.3) 현실적인 사회적 변화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으로 2003년 4월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실시된 '자립생활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같은 해 8월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위드뉴스, 2003. 8),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쟁취 결의대회 및 기획예산처 규탄 집회'⁹⁾(www.cafe.daum.net/KDIL) 등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협의회에서는 공식 인터넷 카페 개설, 회원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포절 작성법 교육(에이블뉴스, 2003. 4. 28),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지원 사업)에 공모하는 등 회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사회운동에 있어 조직은 구성원들의 열망을 집합적 실천의 시도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조직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목표와 행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윤정, 1997). 그런 의미에서 당시 연합체¹⁰⁾가 수행했던 ①회원 조직의 결속 및 역량 강화, ②대 정부 전략목표 제시, ③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의 실행, ④외부 자원동원 등은 매우 중요한 거시적 임파워먼트 지향 행동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5) '따로 또 같이', 새로운 질서의 창조

사회운동이 생성, 발전, 변화, 쇠퇴하는 과정을 유형화한 마이레더(Mayreder)는 그 과정을 이데올

-
- 8) 2003년 4월 18일 전국IL자조단체협의회(준) 출범. 공식출범은 같은 해 9월이다. 참여 단체로는 광주 우리이웃, 노들, 대구 밝은미래, 서울DPI, 서울장애인, 전주작은자리, 피노키오 등 자립생활센터 7개소와 장애인시민행동, 전주순수레자원봉사회, 제주자립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뇌성마비장애인 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연구회 등 7개 단체이며, 협의회 전체 대표는 연구에 참여한 A였다.
 - 9) 당시 협의회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본 규탄집회의 목적은 센터에 대한 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지원을 2005년부터 정부가 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6조 '중증장애인보호'조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 시위 외에도 기획예산처 김용준 과장 면담요청,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면담 등 대 정부 교섭활동을 수행하였다(http://cafe.daum.net/KCULO/BVU5/20)
 - 10) 이후 2003년 10월에는 연합체의 명칭이 한국 장애인 IL단체 협의회로 변경되어 자조집단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탈피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게 되고 2004년 10월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로기의 형성, 조직화, 독자적인 운동으로서의 확립, 권력획득 단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조직화에 이은 세 번째 단계에서 조직은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조직 내부에 분파가 생기고 운동이 분열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때 형성된 다수파와 소수파는 마지막 권력획득 단계에 이르러 어느 한 세력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권력을 잡고 이들의 주장이 제도화되면서 운동성은 자연스럽게 상실된다고 하였다(이신행·장동진·고상두·이진원·양기호·오문화, 1999에서 재인용). 그런데 한국 자립생활운동의 발전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들이 일부 관찰되었다.

(1) 연합체의 분화

‘한국 장애인 IL 단체 협의회’가 공식출범한 1년 후인 2004년 10월 이 단체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이후 센터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에 대한 차별적 이해,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시각차 등이 원인이 되어 서울, 양천, 제주센터가 연합회에서 탈퇴하고 같은 해 11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합회’(이후 센터 연합회)를 설립한다(<http://cafe.daum.net/KCILO/BVU5/36>).

연구자는 이 과정을 <연구참여자 E>가 제안한 바와 같이 연합체의 ‘분열’이 아닌 ‘분화’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분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쟁점은 ‘자립생활센터’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예컨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복지관에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이것을 센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들의 입장 차이를 단순화시키면 ‘당사자주의’ 대 ‘대리인주의’ 혹은 ‘센터 중심’ 대 ‘운동 중심’ 등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 참여자 중 B, E, G의 관점은 주로 전자에 A, C, D, F의 관점은 후자에 속한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내부에 당사자의 권력,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이 전체... 이 전체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대한 위치라고 봐요. ... 중략...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불평등한 권력체계를 비판 견제하고자 하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연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복지 전달체계내부를 장악하지 못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80년대 운동의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연구 참여자 E)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자립생활 센터가 자립생활 운동에 당연히 거점은 되어야 되겠지만 자립생활센터만이 자립생활운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자립생활 센터의 육성이 최우선 되어야 자립생활 운동이 커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아니다 이거죠. (연구 참여자 D)

그리고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자립생활이념의 도입과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연구 참여자 H(비장애인 사회복지사)와 몇몇 정립회관 소속(장애인 사회복지사 포함) 사회복지사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정리하거나 위치를 옮기는 등 인력구성의 재편이 일어나는가 하면 각 연합체는 운동과 센터육성이라는 각각의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게 된다.

(2) 자생적 역할분화와 제도화

이러한 분화의 과정 속에서도 각 연합체는 구체적 활동들을 수행한다. 그 중 센터 협의회는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해 각 정당의 국회의원 면담 등을 실시하였고(<http://cafe.daum.net/KCILO/BVU5/36>) 센터 연합회는 '전동연대'에 속해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공단본부 점거농성'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2005년 4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7개 지역 10개 센터에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이들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는 성과를 달성한다.

이는 이전에 한 개 연합체가 한 개 사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서 연합체가 분화되면서 일종의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이것이 장애계의 다양한 욕구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자립생활센터의 확대와 연합체의 역할분화에 대해 연구 참여자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달래면 이쪽에서 땀, 달래면 이쪽에서 땀... 서로 얘기는 안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역할론이 서로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그 이면의 맥락을 봤을 때 당사자주의하고 대리인주의하고 라는 맥락은 여전히 좀 있는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E).

'자생적 역할론'이라는 용어가 타당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합체 분화 이후 센터 협의회에서는 '활동보조'사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들은 200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 앞 광장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연대한 약 40일간의 육성농성을 진행하는가 하면 4월 27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외치며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대교를 걸어서 건너는 기습시위 등을 벌여(에이블뉴스, 2006. 4.26; 4.27 기사) 마침내 2007년부터 시작해 2008년 738억원, 2009년 1,1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 센터 연합회 측에서는 2006년 9월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를 거점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게 된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령에 '자립생활지원'을 명시할 것과 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전달 주체임을 명시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사항은 2007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복지법 제 4조에 '자립생활지원'이 명시되기에 이른다.

물론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에 있어 장애인들의 요구조건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아직 제도화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활동의 결과물들이 축적되어 법제화되고 있으며 연합체가 분화되어 각각에게 새로운 과업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등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일 뿐이다. 때문에 이러한 법제화가 제도화를 통한 소멸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이들이 정치세력화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역할이 기존의 그것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힘에 의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그들이 '장애인'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새로운 질서의 창조임은 분명하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개인의 임파워먼트가 거시적 임파워먼트로 확산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자립생활운동에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및 그 특성을 여러 구체적 현상들과 문헌고찰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장애인 개인에게 나타난 임파워먼트가 정책결정과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총 5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단계〉 '좌절, 갈 곳 없음을 인식

처음 자립생활을 접하지 못했던 개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싶었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이러한 한계가 지속적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개인적·사회적·정치적 방해물이 존재함을 알고 그것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부터 출발한다는 선행연구(Hur, 2006)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 김미옥 등(2005)은 성인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임파워된 장애인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단절'상태가 되기보다는 '좌절'을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들도 이때의 실패에 주저앉기 보다는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장애운동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2단계〉 '희망의 목격'을 통한 의식화

연구 참여자들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자립생활이념을 접하게 되면서 대폭적인 인식수정 즉, 의식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화 과정이 해외연수에 의한 것이든 동료상담학교에 의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립생활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외국의 중증장애인들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이루어 졌다는 점과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밀리(Miley 등, 1999)등은 임파워먼트의 전제로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인정하고 이러한 유능감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여 재정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허(Hur, 2006)는 개인적 임파워먼트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자기결정권과 자기효능감을 확인 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의식화 전략을 수립할 때 내용적으로는 자기효능감과 유용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활용하되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단계〉 의식화된 개인의 '집단화'

의식화 과정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강한 동기를 형성한 장애인들은 서서히 개인이 아닌 '집단'을 이루게 된다. 이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것은 전문가들의 권유에 의하기도 했지만 자립생활에 대해 알고 싶고 함께 모여 의논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크다. 이러한 집단은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나 다른 단체의 투쟁활동에 연대하면서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익혔을 뿐 아니라 '장애인'으로서의 집단적 정체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집회나 시위, 캠페인 등 집단적 활동을 통해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전 단계가 개인의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단계였다면 '집단화' 단계부터는 개인의 인식변화와 함께 거시적 임파워먼트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4단계〉 비 공식 집단의 '조직화'

의식화된 '코아'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조집단, II단체, 자립생활센터 등은 그들의 활동이 아직 초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인식하고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때문에 이들 집단을 아우르는 연합체를 구성하였고 연합체가 구성된 후 회원단체들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합체 명의로 외부자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라는 전략목표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 개별단체가 연합체를 통해 조직화되면서 훨씬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직화'의 의미는 자립생활센터라는 조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이들이 센터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임파워되어 활동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기존 80, 90년대 장애 운동이 일부 리더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확산되지 못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요소라 할 수 있으며(전정식, 2003), 허(Hur, 2006)가 제시한 거시적 임파워먼트 지향활동인 '공동체에 대한 관여', '공동체 조직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유사한 활동들이라 할 수 있다.

〈5단계〉 '따로 또 같이', 새로운 질서의 창조

마지막 단계에서 자립생활센터 연합체는 두 개의 단체로 '분화'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된다. 이들은 분화된 상태에서 각각 초점화 된 표적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 결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제한적이지만 제도화되고 장애인복지법도 개정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처음보다 축소되었고,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공모제로 전환되는가 하면 장애인 복지법의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는 기존에 명문화된 규정이 전혀 없던 상태와 비교하여 이를 일정 정도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가지 이러한 성공의 경험에는 세미나, 공청회, 성명서 발표, 법률대안제시, 국회의원 면담 등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제도화된 방법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시위, 공공시설 점거, 연좌농성 등과 같은 과

격한 집단행동 등 매우 다양한 활동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한 특성이다.

결국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주로 의식화 단계를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의식화의 결과로 일정정도 심리적 통제감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후의 집단화 및 조직화 단계에서 집단적 행동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단의 규모와 참여인력의 확대를 도모했다는 점은 개인의 내적 임파워먼트가 어느 단계에서 종결된 이후에 거시적 임파워먼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임파워먼트가 함께 순환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임파워먼트 지향활동이 필수적이며 장애인 리더를 양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회복지의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운동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가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파워먼트된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한국 사회복지가 외원단체, 교회사회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어 자선이나 박애사업과 동일시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우쳐 있는 국가정책에서 복지정책이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나(김미경, 2005), 문제는 개인의 내적인 변화만으로는 임파워먼트의 순환적, 확산적 특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의 가치를 갖는다고 전제했을 때 그것은 Wakefeld(1988)가 지적한 것 처처 '분배정의'이고 이 때의 분배는 물질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이인재, 1995 재 인용) 장애인들에게 권리가 분배되고 적절한 사회물리적 환경이 분배되도록 돕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운동 혹은 장애인운동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리더를 어떻게 발굴하고 양성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자립생활운동의 발전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그들은 사회복지사, 장애인운동가 등 다양한 형태로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이들 리더들의 역할이 없이 자립생활운동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향후 이들 리더들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양성되어야 하는가?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러한 리더들의 양성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전문가주의와 당사자주의의 대립과는 또 다른 이슈로서 향후의 관계정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변화된 개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시적이고 집단적인 임파워먼트를 달성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때문에 개인의 인식변화와 당시의 상황을 분리하여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아직 자립생활운동의 발전과정을 다른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해 논문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할애되어있다. 향후 장애인 개인의 인식변화과정, 자립생활운동의 발전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지영. 2005. “여성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경미. 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253-274.
- 김경혜·최상미. 2004.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기반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동기. 2007.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효과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미경. 2005. “사회복지분야의 운동적 성격 및 NGO적 위상에 관한 시론적 고찰-국제사회사업비정부단체 활동을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 743-754.
- 김미옥·김희성·이민영.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성인기 이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31-60.
- 김인숙·우국희. 200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34-61.
- 김윤정. 1997.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수경. 2006.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237-264.
- 박수경·문수경. 2006.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장애 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6(1): 77-89.
- 박시중. “사회복지실천에서 권력주체화 이론의 방법론적 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89-112.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5.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신행·장동진·고상두·이진원·양기호·오문화. 1999. 『신사회운동-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법문사.
- 이익섭·김경미·윤재영. 2007. “한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9(2): 197-222.
- 이익섭·김동기·이한나. 2007. “자립생활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참여 및 고용의 관계와 역량강화의 매개효과”. 『직업재활연구』 17(1): 5-24.
- 이인재. 1995.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6(7): 201-226.
- 이재섭. 1989. “Paulo Friere의 비판적 교육이론의 구조와 실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이혁구. 2000. “권력의 장치로서의 사회복지 : 푸코의 권력이론에 입각한 권한부여 비판”. 『한국사회복지학』 15(2): 328-357.

- 양옥경·최명민. 2005. "사회복지실천모델의 재검토: 전통모델과 임파워먼트모델의 재검토",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11-142.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장애인자립생활(IL) 시범사업평가 및 모델개발연구』
- 전정식. 2003. "한국장애인운동사". 『장애인청년학교 제3기 자료집』. 한국DPI, (미간행).
- 정순돌·김경미·박선영·박형언·최혜지·이현아. 2007.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학지사.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 한진수. 200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Conger J. A. and R. N. Kanungo. 1988.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71-482.
- Gaba P. K. 1999. "An endogenous empowerment strategy: a case-study of Nigerian women." *Development in Practice* 9(1-2): 130-141.
- Gutierrez, L. M. 1990. "Working with Women of Color", *Social Work* 35: 149-153.
- Hur, M. H. 2006. Empowerment in term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Exploring a Typology of the process and components across disciplin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5): 523-540.
- Lee, J. A. B. 2001. *The Empowerment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Building the Beloved Commun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ley, D. and B. Dubois. 1999. Empowering processes for social work practice.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Developing Richer Conceptual Foundations*, edited by Shera W. and Wells L. M.
- Perkins, D. D. and M. A. Zimmerman. 1995. "Empower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2(5): 569-579.
- Stewart R. and Bhagwanjee A. 1999. Promoting group empowerment and self-reliance through participatory research : a case study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y. *Rehabilitation in practice* 21(7): 338-345.
- Yin. 1990.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A Study on Empowerment Process through Independent Living Movement for the Disabled

Kim, Bong-Sun
(SoongEui Women's College)

Previous studies on empowerment have commonly noted that current practice of empowerment understands empowerment only macroscopically and limitedly without reflecting the true idea of empowerment. In addition, they are emphasizing lack of information on specific techniques for the practice.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for the disabled, which have experienced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nd produced actual improvements in policies as their resul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mpowerment observ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owerment consists of a total of five stages, and among them, the stage of conscientization is very important for individual empowerment and the stage of organization for macroscopic empowerment.

Key words: Independent living, empowerment, disabled, qualitative case study

[논문 접수일: 10. 02. 10, 심사일: 10. 02. 26(3.31), 게재 확정일: 10. 04. 07]